

대안교육과 교회교육

1. 문화의 시대와 교육 혁명의 요구

1980년대 지식인의 화두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었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등장한 '세계화(globalization)' 논쟁이 워낙 맹위를 떨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이 매우 중요한 논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계화란 원래 경제적 용어이지만 '1차 세계화'인 15세기 중상주의나 '2차 세계화'인 18세기 산업 혁명과는 달리 WTO로 대표되는 오늘날 '3차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적 세계화를 뛰어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세계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물론 경제 외의 분야들이 모두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전개되는 양상을 띠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세계화에서 가장 부각된 분야가 문화이고, 그 문화가 매우 중요한 상품시장을 형성하여 각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거나 문화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문화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적 메카니즘이 운영체제로 작용하는 것이지 경제가 문화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까지 문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문화가 하찮게 취급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가 상품화됨으로써 생필품처럼 구체적으로 의식하게 되었고, 개인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고 했던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상품에 가격이 매겨짐으로써 그 빛을 잃고 말았다. 이처럼 갑작스럽고 생각보다 엄청난 무게로 등장한 '문화의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통령의 취임식이 문화행사로 치루어지는가 하면, 지적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한국과 일본이 대중문화개방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문화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혁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갑자기 다가온 문화의 시대에, 이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교회가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너무나 소극적인데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대안교육에서 그 논의의 단초를 구하고자 한다.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시대의 성격, 대안교육, 교회교육의 방향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일 뿐만 아니라 광범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비주류라고 생각되는 대안교육을 논의에 끌어 넣으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대안교육은 기존의 교육철학과 교육체제를 부인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미국이 1957년 스푸트니크호 충격으로 교육개혁을 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육학자들을 완전히 배제시킨채 순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소위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다. 그러한 동기는 기존의 제도권 교육인들이 '교육개혁'은 할 수 있어도 '교육혁명'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많은 비판을 받고 곧 수정되기 시작했지만 긍정적 기여도 많이 한 것이 사실이다. 대안교육이 갖는 혁신성은 대대적인 교육 개혁 또는 교육 혁명에 큰 동기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사회가 급변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 대안교육은 흔히 오해받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심오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교육활동을 해 왔다가 일반교육의 위기가 첨예화되었을 때 갑자기 부각되었을 뿐이다. 즉 기존의 교육체제가 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합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대안교육이 그 자리를 메꾸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들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홀리스틱 교육도 페스탈로찌 등 낭만주의자들의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오랫동안 실험되어져 왔으며, 전 세계 43개국 650여개 학교와 1200여개의 유치원으로 확산된 슈타이너-발도르프 학교도 약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셋째로 대안교육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점도 대안교육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넷째로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고 정규 학교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의 보조를 받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실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한국 교육과 교회교육의 문제

최근까지 한국 교육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교육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엘리트를 구별하고 찾아내어 양성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많은 들러리의 회생을 기초로 해서 운영된다. 그리고 철저한 경쟁학습구조(competitive learning structure)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다 인수 학습과 입시지옥이라는 교육환경에 대한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학습구조(individualistic learning structure)나 협동학습구조(cooperative learning structure)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하나의 대안교육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학문적 교육과정의 전통은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다. 그것은 인간의 합리성에 의한 과학의 눈부신 발달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세계화의 담론이 우리에게 던져준 공통적 과제는 불변의 진리로서 철용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합리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교부철학자들이 디오니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양 기둥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선택한 이후 신학도 '신앙'이라는 비합리적 성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것은 합리성의 시대를 선언한 르네상스와 근대철학에 밀려서 '종교의 시대'에서 '합리성의 시대'로 자리를 내어주고 나서 합리적으로 변해버린 크리스찬들을 그나마 신도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런데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합리성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주지주의 교육을 정당화하고 이를 강조해 왔다. 그것은 인간이 축적해 온 놀라운 업적이 합리성을 근거로 쌓아 올린 지식의 체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음으로써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지주의는 교육체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는 철학으로 작용하였고, 기독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신앙의 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이러한 주지주의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즉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실천을 전제로 하는 지식을 강조하거나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데 큰 기능을 하는 가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20세기 후반 교육의 큰 흐름은 '지식'의 강조에서 '지식+가치'의 강조로 발전해온 노정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절차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즉 이동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회 탐구'와 그 문제와 관련된 '가치 탐구'의 두 전략을 통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 모

든 아동들이 사용해야 할 보편적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동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많은 선택들은 사실상 비합리적 선택이 대부분이다. 고집, 권위, 직관 등에 의해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 더 귀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신세대들은 구세대에 비하여 더욱 비합리적 사고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구세대와 신세대는 문자세대와 영상세대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전자가 이성적이라면 후자는 감성적 또는 감각적이며, 단선적이라면 입체적이고, 미래를 위해 현실을 인내한다면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실을 중시하며, 소유가치를 중요시하는데 비하여 사용가치를 중시하며, 문화를 소비하는데 비하여 문화를 생산하는 등 본질적 차별성을 가지고 신사회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성세대의 경험이 무의미하게 됨에 따라 기성세대의 권위가 추락하고, 신세대는 정보화 시대에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면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합리성이 맥을 추지 못하는 문화이다. 최근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이 '범생'을 외면하고 '튀는 애'를 찾아 혈안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 가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범생'이 외면당한다면 이미 제도권 교육은 그 적합성을 상실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권 교육을 기독교 교육도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을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교육의 경우로 제한하며 생각해 본다면, 교회교육은 오히려 후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선진국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교회학교가 아동들에게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나 제도권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또한 모든 예술이 종교를 토대로 발전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을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었고, 앞서가는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해 내고 있었다. 아울러 교회가 교회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쏟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개발 드라이

브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물량주의로 성장제일주의적 복음 운동을 전개 하면서 청소년을 교육하여 신앙인으로 만들기 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성인 교인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되고, 성인 위주의 교회 행정을 함으로써 교회교육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회이동이 급격한 한국 사회의 특성이 더욱 이를 부채질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권 교육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대안적 교육 활동을 해 오던 교회학교가 교회의 무관심과 무투자, 그리고 대학 캠퍼스의 선교 운동 활성화 등으로 말미암은 교회 청년의 공동화 현상으로 위축을 강요받게 되었다. 한 때 교회마다 중·고등부의 신앙 축제 행사들이 청소년의 신앙을 자신들의 문화로 발산하고 꽃피우며, 중요한 전도 행사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는 거의 그런 행사를 하지 않거나 무관심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문화적 욕구와 다양한 재능을 펴 볼 마당이 없던 시절에 상당히 중요한 문화 마당 역할을 하던 교회 문화가 거의 소진되고 만 것이다.

3. 대안교육 운동이 교회교육에 주는 시사점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대안학교들은 이러한 주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그 중에 성공한 대안학교로 유명한 슈타이너-발도르프 학교(Steiner-Waldorf School)는 교육의 근간을 지식 교육이 아니라 예술 교육에 두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 학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약 20년간의 세월을 3개의 7년기라고 부르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핵심적인 교육과제를 다르게 실천하고 있다. 제1기는 태어나서 7세까지로 이때 아동은 건전한 발육과 오감에 의한 환경의 모방을, 제2기는 7세부터 14세까지로 예술 체험에 의해 세계를 미적으로는 느끼고 파악하기를, 제3기는 14세부터 21세까지로 사고에 의해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단계로 파악한다. 어릴 때부터 지적 발달에 모든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주지주의 교육에 비하여 슈타이너 학교는 14세 때까지는 거의 지적 교육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학교가 성공한 것은 그렇게 하

고도 일반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적 교육을 늦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는 것이고, 그동안 일반 학교 학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교에 대한 흥미와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자아의 표현과 그로 인한 발견의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학교의 예술교육은 특별한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동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성과 능력을 발달시키고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는 데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에는 주지주의 교육보다는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길러주는 예술 교육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예측이고 보면 최근의 대안교육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예술 교육 또는 문화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철학은 일반 교육 뿐만 아니라 교회교육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새삼 깨닫게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금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회계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밀천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두 달란트를 더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둔 한 달란트를 내어 놓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꾸중을 듣는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그 재능에 따라 풍성한 은사를 부여받기에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성실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교훈하신 것이다.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칠게 표현한다면 '진·선·미'라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교육과 교회는 주로 '진'과 '선', 즉 지식 교육과 도덕적 선행만 강조해 왔고, 예술에 해당되는 '미'적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제한해 왔던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미'적 달란트는 어디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

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미적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하고 고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속세의 교육이 비록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에 치우쳤을지라도 교회교육은 초기 기독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교육은 점차 일반 교육의 경향에 수동적 추종자로 전락하였고, 동시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찌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잘못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 학교는 당회와 교인의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오직 사명감에 불타는 소수의 주일학교 교사에 의해 힘들게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일학교를 의면하는 현상이 계속될 때 우리 교회의 노령화 현상은 가속되고, 세속의 현란한 대중문화의 유혹 속에 젊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술적 달란트를 세속화시키거나 땅에 묻을 수 밖에 없는 지경으로 쇠락해 갈 것이다.

4. 결어

신학자 니이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은 세속적 삶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배워서 살아가게 된다. 삶의 양식이란 다른 말로 ‘문화’를 의미한다. 즉 기독교 문화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기독교 문화를 가르쳐 줌으로써 진정한 생활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을 배출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의 모델과 경험을 교회가 주지 못한다면 심판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꾸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교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성장 제일주의의 거품을 빼고, 성인 중심의 교회 정책에서 눈을 돌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교회 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독교

청소년 문화의 마당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21세기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구조조정의 한 방향이다. 지금 이들을 무장시키지 못한다면 첨단화된 세속 문화의 도전앞에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른다. 卍